

'이것이 한지다'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10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포스터·슬로건 공개

'202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10월 2~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천년 한지의 본고장 전주에서 열린다.
27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의 포스터와 슬로건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축제 홍보에 돌입했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이것이 한지다'로, 일상 속에서 한지의 쓰임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해 살펴보고, 한지를 손 끝으로 느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슬로건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축제 정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냈으며, 곡선적이고 자유로운 그래픽을 통해 한지가 지닌 유연함과 무한한 확장성, 생동감을 표현했다. 또한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 전통문화로서 한지가 세계

적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축제는 △한지마당(한지운동회 등) △제31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초대작가전 △제5회 전국 어린이 한지미술대회 수상작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축제 개막식에는 시민들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패션디자이너들의 한지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지패션쇼가 진행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올해 한지산업대전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지의 매력과 쓰임을 다채롭게 보여줄 것"이라며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포스터



고창군이 지난 26일 전통예술체험마을 개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체험마을 운영에 돌입한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본격 운영

개관식 가져... 다양한 예술체험 제공

고창군이 지난 26일 전통예술체험마을 개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체험마을 운영에 돌입한다.
개관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마을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체험동 입주자, 지역 문화예술인,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추진경과보고, 기념식, 축하, 현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했으며 '국가무형유산 윤도장 특별전시'와, '도 무형유산 자수장 공개시연회'도 함께 열렸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고창읍성 서문에 조성된 한국마을로, 고창군의 다양한 전통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집적공간이다.
당초 숙박시설로 계획했으나, 지역 내 무형유산과 다양한 명인·명장들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창작체험공간으로 과감히 용도를 변경하여 전환했다. 전통예술의 향기를 직접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

어 고창읍성과 함께 연계한 고창군 대표 문화 집적공간이 됐다.
용도 변경은 단순한 시설 활용을 넘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풀이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로 성장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는데 한몫했다.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도 무형유산(자수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관소리), 명인·명장(도예, 천연염색) 체험을 할 수 있으며 8월부터는 매일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살롱' 원데이 클래스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전통의 맥을 잇고,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며,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이 공간을 더욱 발전시켜, 찾는 이들에게 고창군의 대표 예술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국보순회전 개최

9월 2일~12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급 청화백자 5점 공개



백자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

정읍시립박물관이 9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과 함께 '국보순회전-모두의 걸음'을 열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급 청화백자 5점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는 지역 순회전으로, 정읍에서 왕실 도자의 품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번 전시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미감을 상징하는 청화백자에 주목했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백자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가 공개된다. 원통형 내외와 활짝 핀 모란꽃을 투각한 외곽이 겹겹이 맞물린 이중 항아리 구조가 특징으로, 교과서에도 소개된 우리 문화

유산의 대표작이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청화백자가 함께 전시돼 왕실 도자의 조형미와 기술적 정점이 입체적으로 조명된다.

전시실에는 관람형 전시에 체험을 더한 교육 공간도 마련됐다. 촉각 체험물로 배우는 '아하 배움터', 어린이를 위한 '쓱쓱 퍼즐-청화백자'가 상시 운영되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감상 가이드가 작품 이해를 돕는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작품을 보고, 만지고, 스스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보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구성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조선 왕실이 사용한 보물급 청화백자를 직접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이번 순회전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왕실 도자의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정읍이 역사·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문의: 정읍시립박물관 063-539-6792).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진단' 체험행사 개최

나만의 색상을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오는 9월 6일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 세미나실에서 9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가을 계절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체험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으며,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진단'이라는 주제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퍼스널컬러 이론과 시연, 골격진단 및 컬러 심리진단으로 강연이 이뤄진다. 색상을 활용한 심리테스트와 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해소법을 찾고, 나아가 내면의 자아를 찾는 컬러테라피

를 진행한다.
또한 색상 진단전을 활용한 이미지 만들기들을 통해 자신이 원본인지 콜본인지를 알아보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는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알아보고, 알맞은 스타일링을 만들어갈 수 있게 진단한다"면서 "색채를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오는 10월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2025 미래문화축제 전주예술난장'을 앞두고 함께할 거리공연팀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주예술난장은 10월 17~19일 사흘 동안 진행된다.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팔복예술공장 곳곳이 무대가 돼 다양한 거리공연이 펼쳐지고,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거리공연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두 분야로 진행된다. 거리공연 부문에 선정된 팀은 공연 기회와 함께 중규모 작품 기준 최대 800만 원의 제작 지원비를 받는다. 또 공공미

술 부문에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프로젝트당 최대 500만 원의 제작 지원비가 지원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전주예술난장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도시의 공간과 일상이 예술로 확장되는 현장을 보여줄 것"이라며 "거리공연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주예술난장은 정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미래문화축제와 연계해 추진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